

전남 동부권

“여자만 송어잡이 그물규제 풀어달라”

여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어민들 촉구 “2중자망 조업한계 3중자망 한시 허용을”

11월초부터 3월말까지 송어를 잡아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여자만(소라·울촌·화양·화정) 어민들이 송어잡이에 3중 자망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공청회 주제 발표에 나선 김정수 대책위 위원장은 “송어잡이는 통상 3중자망으로 조업해야 일정한 어획량을 확보할 수 있으나, 여자만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대부분이 2~3t 정도의 소형 어선으로 출자망을 사용한다”며 “송어가 잘 걸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물이 터져버리기 일쑤여서 조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의 단속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물압수와 수협대출이 중지되고 면세유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어민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나아가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 “송어잡이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여수시, 전남도에서 역역을 실시해 구획어업으로 한시적 3중자망 사용을 승인하라”며 “이는 수산자원관리법 제 23조와 시행규칙 7조에 연안 자망어업은 출자망만 사용 가능하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중 이상 자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로 사용해왔던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 단속하고 있다”며 “연안자망어업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관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의견을 들어야 승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에서는 1983년 영광군의 대하 채취에 3중자망이 승인돼 현재까지 조업을 하고 있다”며 “타지역 사례로 강원도는 6700만원을 들여 3중 자망어업의 제도적 수용을 위한 수산자원관리 용역을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지역 어가구 3889호 중 1296호가 여자만을 끼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수=임문택기자 mtlim@



여수지역 독거노인과 청소년들이 최근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을 찾아 레일 바이크를 즐기고 있다. 여수시 만덕동주민센터는 최근 해양관광개발 후원으로 독거노인과 가정폭력·저소득 가정 청소년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탑승 행사를 가졌다. <여수시 제공>

기을속으로 출발~

주민 손으로 만드는 ‘명품 기차마을’

곡성군 기관·단체 금송 등 25주 헌수 ‘참여의 동산’ 조성

곡성군 지역주민들의 헌수(獻樹)로 섬진강 기차마을에 ‘참여의 동산’이 조성됐다. 곡성군은 지난 3월 기차마을내에 그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참여의 동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내 기관·사회단체는 물론 각 읍·면에 지속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참여의 동산’에는 지역주민들을 비롯 곡성경찰서 등 관내 25개 기관·사회단체가 참여해 금송, 배롱나무, 후박나무, 홍단풍 등 25주를 식재했다.



곡성군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헌수(獻樹)한 배롱나무를 섬진강 기차마을내에 심고 있다. <곡성군 제공>

‘참여의 동산’은 지역민이 나무 운송에서부터 식재까지 자발적으로 자비를 들여 헌수를 통해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헌수에 참여한 주민 박동식(삼기면)씨는 “주민들이 섬진강 기차마을에 심은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kwangju.co.kr

태풍·적조 대응, 길을 묻다

수산과학원 오늘 여수서 심포지엄

국립 수산과학원(원장 손재학) 남서해 수산연구소는 14일 여수시 소호동 디오션리조트에서 ‘태풍과 적조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어업인 및 수산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기후 및 해양환경 특성과 미래예측 등 7편의 주제논문을 발표한다.

도 해양수산과학원 이용한 지소장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주제 발표 후 어업인 및 수산관련 산학연관 관련자들이 ‘태풍 및 적조 등 자연재해에 양식산업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남해안 주변 해양환경 변화와 태풍 및 적조대응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의 의견수렴 및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희화기자 chkim@

필리핀 과일 광양항으로 수입

여수광양항만공사, 수출업체와 MOU

내년 1월부터 필리핀산 열대 과일이 광양항을 통해 수입될 전망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필리핀 농수산물 수출업체인 리더스웨이사와 광양항 이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현지에서 교환했다”고 13일 밝혔다. 리더스웨이사는 내년 1월부터 연간 7000TEU에 달하는 필리핀산 열대과일, 코코넛을 원료로 한 인공도양인 코코피트 등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광양항을 이용하기로 했다. 또 점진적으로 광양항 이용 물동량을 확대

하기로 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인센티브 제공, 필리핀-광양항 화물 직항노선 개설, 속성실 및 저온냉장창고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필리핀은 국내 대형식품업체들이 진출해 있는 아시아 최대 농산물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케팅을 벌여 광양항 물동량을 창출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전북

4조 6천억원

도, 내년 예산 편성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4조 6139억원으로 편성, 13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3조 9461억원, 특별회계 6678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 4조375억원보다 7.1% 증가한 것이다. 도는 내년도 예산을 일자리·사회적 약자·새만금·삶의 질 등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재원은 ▲일자리창출 분야가 4453억원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109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5.8%, 12.8% 늘었다. 특히 ‘삶의 질’ 향상, 새만금 수질 개선, 향토·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작년보다 각각 46.4%, 43.2%, 37.8%가 증가했다. 이 예산(안)은 제29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확정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만추의 향교 전주시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향교내 수백년된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다. 전주시는 향교를 비롯한 전주 자연생태박물관 앞길 등 시내 5곳을 ‘아름다운 단풍과 낙엽길’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연행뉴스

군산 ‘국가 도로망’ 총체적 난관

예산 부족·주민 반발·설계 변경...공사 지지부진

정읍시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읍시는 13일 2014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갖고 확보방안을 모색했다. 국비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보고된 신규사업은 농·수·축산용 미생물 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10개 사업 5239억원 ▲광복회계사업은 3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21개 사업에 975억원 등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군산지역의 국가 도로망 사업이 예산난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하다. 현재 추진중인 군산지역 핵심도로망 사업은 ▲군장대교 ▲군장산단 연안도로 ▲고군산 연결도로 건설사업 등 크게 3곳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모두 예산이 부족하거나 주민반발, 설계변경 등의 난관에 부딪혀 진척이 더딘 상태이다. 군산시 해방동에서 충남 서천군 장항읍을 잇는 3.18km의 교량을 건설하는 군장대교 공사는 내년 말 준공 계획이지만, 현재 공정률은 35% 수준이다. 보상비를 포함한 2073억원의 예산 중 올해 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89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로 보면 43%에 불과하다. 현재 해상의 교각공사가 거의 끝나갈 상황에서 교량 상부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1180억원 가량의 국비지원이 필요한 상황여서 목표 기한내 완공은 불가능할 것으로 건설업체에서는 보고 있다. 군산시 구암동~금암동 구간(1.5km)을 35m폭으로 넓히는 군장산단 연안도로 확장공사도 지난 2008년 3월 착공이후 중단된 채 진척되지 않고 있다. 495억원이 투입된 이 공사는 경교 구간간의 교량 높이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이 커 2010년부터 중단됐다.

또한 새만금방조제에서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를 연결하는 총연장 8.76km의 고군산군도 연결사업 역시 지난 2008년 착공, 2014년에 완공될 예정이지만 현재 공정률이 35%에 머물고 있다. 총 사업비 2538억원 중 절반도 되지 않는 1215억 원밖에 투입되지 않았고, 보상도 전체 484억원 가운데 312억원만 지급된 상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들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연계교통망 확충, 충남과의 접근성 향상, 고군산관광 활성화 등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

지역산업정책대상 고창군 우수상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최근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IPS) 주최의 ‘제9회 지역산업정책대상’ 평가에서 지원 및 관련산업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역산업정책 대상’은 지역간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를 포상한다. 고창군은 ‘농업 낙후지역에서 풍요와 희망의 고창으로 도약’이라는 주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체계적인 농업 육성정책 수립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북부 6차산업 육성 ▲고창 황토메기유통회사 안정적 운영 ▲맞춤형 귀농귀촌 시책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기회 및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단신

김제시, 모악산 마실길 걷기행사

김제시는 최근 금산면 모악산 잔디광장에서 시민과 사회단체·관광객·공무원 등 300여명 참여한 가운데 생태문화체험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걷기행사는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김제 ‘모악산 마실길’

을 도보 여행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열렸다. 걷기행사는 모악산 마실길 6.2km(모악산 잔디광장→백운동 뽕밭→금동계곡→연리지→금산사→모악산 잔디광장) 구간에서 진행됐다. /김제=김철수기자 knews@

정읍시-中 남경시 교류·협력 MOU

정읍시는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학 농민혁명과 태평천국 혁명’ 국제 학술대회에서 중국 남경시와 상호간 교류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동학 농민혁명의 중심지인 정읍시가 기념제단과 함께 주도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하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국 남경시는 1853년부터 12년간 태평천국군(太平天國軍)이 점령해 천경(天京)으로 불렀으며, 오(吳)·송(宋)·양(梁)의 수도였던 역사와 전통의 도시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농기센터, 월정리에 콩 선별장 운영

순창군 농업기술센터가 구입한 월정리 사골 소득개발시험포내에 콩 선별·선별작업장을 운영해 농업인들로 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84 규모의 선별작업장은 정선 선별작업기 2대를 갖춰 하루 8t의 콩을 선별할 수 있다. 콩 정선·선

별장은 다음달 10일까지 운영된다. 장류용 콩은 11월 말까지, 검정콩은 12월 10일까지 운영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올해 군 전체 콩 생산량은 590ha에서 708t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의(063-650-5164) /순창=이동희기자 dhlee@

300명 참여 ‘부안 태권 리그전’ 성료

2012 체육복지 택견 리그전 관막음대회가 지난 11일부안예술회관 다목적 강당에서 개최됐다. 올해 처음 열린 택견 리그전에는 연무와 결연 부문에 50여개 클럽 30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전주클럽이 우수 선수부와 육성부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남원클럽이 희망부와 새싹부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어 부안클럽은 우수선수부와 육성부에서 각각 3위를 기록했다. /부안=강철수기자 knews@